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트 럽프 취입과 한국의 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맨 오른쪽)가 24일 오전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지역 예술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연대 유보·거부... 文·安의 '마이웨이'

이재명·박원순·김부겸 공동 정부수립 연석회의 제안 거부 文 “당 경선 후 논의 가능”...安 “결선투표 도입이 해법”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김부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공동 정부 수립을 위한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으나 카운터파트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하며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대선 주자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대표도 공동 경선 및 공동 정부수립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4일 일부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동경선에 대해 “변형된 단일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단일화는 국민이 이제 식상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에 많은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며 “국민이 식상해하는 단일화보다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결선투표제의 장점으로 “제도적으로 국민의 50% 이상이 자기 손으로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돼 개혁과제를 이뤄낼 수 있다”며 “다당제로 후보들도 적이 너무 많아져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정책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결선투표를 하면 모든 후보가 완주할 수 있어 정책 등 콘텐츠 경쟁이 가능하다”며 “1월에 결선투표제 발의했는데 반드시 통과하고 쟁취해야 하며 이의제기하는 정치 세력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야권 공동정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

도를 드러냈다. 안 전 대표는 “탄핵 인용도 결정되지 않았고 대선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논의할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혼자서 국정 운영 못 한다”며 “결국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공동 정부수립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 공동정부를 말하는 것은, 야당들의 경선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야당들의 준비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는 준비를 착실히 갖춰가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의 경선이 끝나고 정권교체와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필요하면 야권의 연대 또는 연

정 그런 것을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경선 실시 문제에 대해서 “공동경선 부분은 전 이미 당에 전부 백지위임한 상태”라며 “당에서 잘 논의해주면 따르면 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가나다 순)은 이날 일 오전 국회에서 ‘야권 공동정부 추진 대선주자 초청 좌담회’에 참석, “결선투표나 공동경선, 정치협상 등 야당의 강력한 공동정부를 위해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동정부 추진 대선주자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 시장은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 3명의 공동경선보다는 대선 본선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원내 4당 ‘바른 정당’ 공식 출범

현역의원 31명...보수 지지층 놓고 새누리과 경쟁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바른정당이 24일 ‘법보수의 구심점’을 기치로 내걸고 공식 출범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당직자와 당원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을 완료했다.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에서 의원 29명이 동반 탈당을 선언한 지 28일 만이며, 지난 5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해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린 이래 19일 만이다.

이로써 바른정당은 현역의원 31명을 둔 원내 제4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향후 대선정국에서 보수층을 놓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정당은 이날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정병국 의원을 초대 당 대표로 추대했고, 김재경·홍문표·이혜훈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했다. 주요원 원내대표와 이

종구 정책위의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는 등 지도부 진용 구축을 완료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 새누리당 염동열 전략기획부총장,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공동대표가 참석, 축하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새 지도부는 새누리당을 ‘가짜 보수’로 규정하고 바른정당이야말로 정통보수의 맥을 잇는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수 대연합’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가짜보수를 배격하고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겠다”며 “이제 바른정당이 보수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성취를 이끈 진짜 보수가 시계 바늘을 미래로 향하게 하자. 반드시 적극 보수 정권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대통령 누드화’ 표창원 윤리위 회부

국회의원 회관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 주최...표 “책임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를 표현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표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을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경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풍자요소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전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본인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 작품 수위가 정도를 넘

어섰다는 비판과 관련 “표현의 자유 영역이나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시회에서는 프랑수아 회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이 논란이 됐다. 이 작품은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패러디한 것이다.

표 의원은 “표창원이 작품을 골랐다”는 일부 여당 및 친여당 정치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된 작품인 ‘더러운 잠’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 취향은 아니지만 ‘예술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文·安 “존중”-李·朴·金 “유감”...민주를 갈등 예고

대선후보 완전경선제로...오늘 당무회의서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완전국민 경선제’를 골자로 하는 대선후보 경선규칙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당의 대선주자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 일부가 반발하고 나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이들은 특히 야권 대선후보 공동경선을 주장하면서 당 지도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경선 료 확정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된다.

박 시장과 김 의원이 경선 료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이 료에 반발해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시장과 김 의원은 그동안 ‘야3당 대선후보 공동경선-공동정부 구성’을 요구하며 당의 료 협상 참여를 거부해왔다.

이날은 이 시점까지 가세해 국회에서 ‘야권 공동정부 추진 대선주자 초청 좌담회’를 열고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 대선주자들 연석회의와 야3당 지도부 원탁회의 구성을 촉구하기로 하면서 ‘비문’(비문재인) 주자 3인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됐다.

이들은 특히 기존의 야3당 공동경선을 고집하는 대신, 결선투표제 역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일종의 ‘절충

점’을 제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민주당 당헌당규개정 정책위원회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완전국민경선’을 골자로 하는 경선규칙 결정사항 발표를 밀어붙이면서 료를 둘러싼 신경전이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 시장 측 박홍근 의원은 “주자들 합의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경선규칙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금은 당 지도부가 공동정부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규칙 결정을 강행한 데에는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일단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공동경선에 대해 “아직 우리 당의 경선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야당들의 준비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이르다고 본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지사는 최근 라디오에서 “정당에서 후보를 먼저 선출하고서, 그 이후에 (연대) 생각하는 것이 순서”라며 공동경선 주장에 “정당정치를 간과하는 발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민주당 경선규칙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박지원 “文 대북송금 특검 발원 거짓말”

“TV 공개토론 하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4일 대북송금 특검의 결정 과정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거짓말을 했으며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문 전 대표가 전남에서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느냐 특검이 수사하느냐 선택의 문제였다’면서 ‘검찰 수사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한정된 특검을 택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대북송금 특검은 민주당에서도 모두 반대했고 심지어 당시 당 대표였던 정대철, 사무총장 이상수 의원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스승이던 김원기 교수도 청와대를 방문해 반대했다”면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새누리당 요구와 DJ(김대중 전 대통령)와의 차별화를 위해 대북송금 특검을 노 대통령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부근 남동측 토지 864.8㎡ 건물 1514.31㎡ 감정가 20억7천2백 ▶ 최저가 14억5천
- ★ [공장] 광주시 북구 일곡동 OB백주 광주공장 부근 토지 1872.59㎡ 건물 1540.1㎡ 감정가 13억7천2백 ▶ 최저가 9억9천6천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52.6㎡ 건물 2547.76㎡ 감정가 11억1백 ▶ 최저가 7억7천1백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무인도/최적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7백 ▶ 최저가 12억4천1백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16억3천7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18억4천6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최고의 투자까지 월수익 최상 (대기업 임대중) 토지 9,280㎡ 건축 2,885㎡ 매매가 170억
- ★ [토지]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토지 23,147㎡ 매매가 평당10만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당후 협의가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중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생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내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북구 신원동 첨단2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용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광주 서구 용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